

로버트 A. 피터슨 박사, 구원, 세션 23, 구원과 신학적 주제, 구원과 언약, 구원의 적용, 요약 차트

© 2024 Robert Peterson 및 Ted Hildebrandt

이것은 구원에 대한 그의 가르침에서 로버트 피터슨 박사입니다. 이것은 세션 23, 구원과 신학적 주제, 구원과 언약, 구원의 적용, 요약 차트입니다.

우리는 실제로 이 강의 전반에 걸쳐 공부한 교리를 가로지르는 언약의 성경적 신학적 주제를 조사함으로써 강의를 마무리합니다.

이것은 다음의 구절들이 증거하는 것처럼 중요한 성경적 주제입니다. 예레미야 31:31,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새 언약을 맺을 것이다. 예레미야 31:31.

누가복음 22:20, 예수께서 말씀하셨으니, 이 마지막 만찬의 잔은 너희를 위하여 부어지는 내 피의 새 언약이니라. 누가복음 22:20. 고린도후서 3:6,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도로 삼으셨으니, 이는 새 언약의 사역자가 될 자격이 있음을 뜻한다.

고린도후서 3:6. 히브리서 9:15, 그러므로 예수는 새 언약의 중보자입니다. 히브리서 9:15. 성경적 주제가 서로 얽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언약이라는 두드러진 주제가 선거에서 영생과 영광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열 가지 신학적 측면이나 교리와 모두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에 놀라지 않습니다.

선거. 하나님은 우상 숭배자 아브라함을 택하여 궁극적으로 모든 민족에게 구원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와 언약을 맺으시고 그에게 모든 칼데아인을 떠나 새롭고 먼 땅으로 가라고 지시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큰 민족으로 만들고, 그를 축복하고, 그의 이름을 크게 하고, 그를 다른 사람들에게 축복이 되게 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창세기 12:1, 2. 하나님은 약속하셨습니다. 나는 너를 축복하는 자들을 축복할 것이다. 나는 너를 업신여기는 자를 저주할 것이다.

그리고 땅의 모든 민족이 너를 통하여 복을 받을 것이다. 창세기 12:3. 이것은 아브라함 언약이며, 바울이 설명했듯이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을 때 성취된다. 갈라디아서 3:7~9. 믿음을 가진 자들은 아브라함의 아들됨을 너희가 아느니라.

이제 성경은 하나님께서 이방인을 믿음으로 의롭다고 하실 것을 미리 알고,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미리 전하여 이르시되, 모든 민족이 너를 통하여 복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믿음을 가진 자들은 믿음을 가진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갈라디아서 3:7~9.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에 대한 하나님의 선택은 그의 모든 영적 후손, 곧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에게 해당됩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약속은 그의 모든 영적 후손, 즉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에게 속합니다.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모든 그리스도인은 아브라함의 영적 자녀입니다.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신 것은 우리가 이전에 말했듯이 그의 모든 혈육의 후손에게도 여전히 해당됩니다.

민족적 이스라엘. 바울은 주로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1세기 믿지 않는 유대인들의 비정상적인 상황을 설명합니다. 그는 복음에 관해서는, 유대인들이 여러분의 이익을 위해 원수이지만, 선택에 관해서는, 그들은 조상들 때문에 사랑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운 은사와 부르심은 돌이킬 수 없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11:28-29.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택하여 언약의 백성으로 삼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의 후손을 사랑하십니다. 심지어 그들이 믿지 않는 가운데서도 말입니다. 동시에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거부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아브라함의 새 언약이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택하신 것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와의 연합. 바울은 아브라함에 대한 하나님의 축복이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이방인에게” 온다고 가르칩니다.

갈라디아서 3:14. 아브라함 언약의 성취. 이 언약의 약속은 그리스도와 관련이 있으며 모세의 율법보다 430년 앞서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17. 이 약속은 예수를 믿는 유대인과 그리스인을 위한 것이며, 따라서 인용하자면, 모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며, 즉 그와 연합되어 있습니다. 28절.

그리고 그와 연합한 모든 자는 그에게 속합니다. 그러므로 약속에 따라 아브라함의 씨 상속자들이라고 인용합니다. 29절.

이런 식으로 바울은 아브라함 언약의 회원 자격을 그리스도와의 믿음의 연합과 연결합니다. 거듭남. 바울의 가장 강력한 새 언약 구절은 모세 언약과 유리하게 대조합니다.

바울은 자신에 대한 강한 확신이 아니라, 인용하자면,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를 통해 강한 확신을 표현합니다. 고린도후서 3:4. 그러므로 그는 하나님 안에서 같은 곳에서 자신의 충분함을 발견합니다. 5절. 그런 다음 그는 인용하자면, 그는 우리를 글자가 아니라 영의 새 언약의 사역자가 될 수 있는 자격을 갖추게 했다고 설명합니다.

글자는 죽이고 영은 생명을 줍니다. 6절. 이것은 모세의 언약과 새 언약에 대한 그의 첫 번째 대조입니다. 전자는 글자로 특징지어지며, 율법의 요구는 십계명으로 요약됩니다.

모세의 언약은 이스라엘이 그 요구를 지킬 수 없었기 때문에 죽인다. 반면에 새 언약은 문자가 아닌 영, 대문자 S로 특징지어지며, 죽음이 아닌 생명으로 끝난다. 모건과 피터슨은 이러한 대조를 설명한다.

인용문, 글자와 영은 서로 다른 설명, 요구, 결과를 가진 두 가지 다른 언약을 의미합니다. 율법의 글자는 죽입니다. 바울이 고통스럽게 배웠듯이, 로마서 7:10과 11에서 불순종하는 자를 죽입니다.

영은 이 시대에는 거듭남으로 생명을 주고, 다가올 시대에는 부활로 생명을 줍니다. Morgan과 Peterson, *The Glory of God, and Paul, Texts, Themes, and Theology*, InterVarsity, 2022, 104쪽에서 인용. 히브리서의 저자는 또한 언약을 거듭남과 연결합니다.

히브리서 8장은 주로 예레미야의 새 언약 구절인 예레미야 31:31~34를 인용한 것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저자는 예레미야 31, 31을 인용하는데, 그 구절에서 하나님께서 새 언약을 맺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히브리서 8:8). 히브리서에서는 중생에 대해 명확하게 언급하지는 않지만, 다음과 같은 말로 암시하고 있습니다. 인용문,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그리고 각자가 자기 동포와 자기 형제 자매에게 이르기를, 주를 알아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다 가장 작은 자부터 가장 큰 자까지 나를 알 것이기 때문이라, 히브리서 8장 10절과 11절. FF 브루스는 하나님의 법을 그들의 마음에 심는 것은 그들이 그것을 기억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의미한다고 해석합니다. 예레미야의 말은 사람들이 새로운 마음을 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필요한 것은 새로운 본성, 죄에 대한 속박에서 해방된 마음, 하나님의 뜻을 자발적으로 알고 사랑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마음이었습니니다.

새 언약은 이 새로운 마음을 줄 수 있었기 때문에 새로운 언약이었습니다. FF 브루스, *히브리인에게 보낸 서신*, 신약성경 신국제주석, 172~173쪽. 부름.

바울은 이전에 선거에서 논의했던 구절에서 부르심을 언약과 연결합니다. 인용하자면, 복음에 관해서,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의 이익을 위해

원수입니다. 그러나 선거에 관해서, 그들은 족장들 때문에 사랑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로운 은사와 부르심은 돌이킬 수 없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11:28, 29. 마지막 구절에서 바울은 하나님께서 민족적 이스라엘인들과 함께 끝나지 않으셨다고 확신하는 이유를 말해줍니다. 하나님께서는 은혜로운 은사와 부르심을 철회하지 않으십니다.

그들은 돌이킬 수 없습니다. Shriners는 우리가 바울의 메시지를 이해하도록 도와줍니다. 인용문은 바울에서 흔히 볼 수 있듯이 8:28 , 30, 9:12와 비교해보세요. 부르심, *kleisis* 는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효과적인 부르심을 나타내며, 여기서는 아브라함과 이스라엘의 부르심을 반영합니다 .

취소할 수 없다는 단어는 법률 용어입니다. 고린도후서 7:10과 비교해보면,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의 깨지지 않는 본질을 알 수 있습니다. 인용문 닫기, 톰 슈라이너, 로마서 주석, 626쪽.

이 본문 바로 앞에서 민족적 이스라엘의 미래를 논하면서 바울은 구원자가 시온에서 올 것이라고 썼습니다. 그는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않음을 돌이킬 것입니다. 이것이 내가 그들의 죄를 제거할 때 그들과 맺을 나의 언약이 될 것입니다.

로마서 11:26과 27, 칠십인역, 이사야 59, 20, 21을 인용. 여기서 언급된 언약은 새 언약입니다. 따라서 바울은 간단히 말해서 죄를 없애는 새 언약과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결합합니다.

히브리서 기자의 경우 동사의 완전한 수동적 사용만이 불린다. 사실, 그것은 서신의 다른 어느 곳에서도 나타나지 않는다. 폴 엘링워스의 *히브리서* , 신국제 그리스어 성경 주석, 462쪽. 히브리서 기자의 경우 동사의 완전한 수동적 사용만이 불린다는 사용하며, 그는 부르심의 개념을 그리스도 안에서 새 언약과 통합한다.

히브리서 9:15에서, 그의 자신을 제물로 바친 것은 구약의 동물 제사보다 우월합니다. 왜냐하면 그의 피는 그들의 피와 달리, 인용문에서 영원한 구속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12절. 게다가, 그의 속죄는 신자들의 양심을 하나님 앞에서 정화시켜 그들이 그를 섬길 수 있게 합니다.

히브리서 9:13과 14. 이것은 15절의 배경을 마련하는데, 15절은 이렇게 인용합니다. 그러므로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이시니, 이는 부름을 받은 자들이 첫 언약 아래서 지은 범법에서 구속을 위한 죽음이 있었으므로 영원한 기업을 약속을 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인용문 닫기.

그리스도는 새 언약의 유일한 중보자이시며, 그의 속죄만이 믿는 자들에게 영원한 상속을 가져다줍니다. 이 구절이 끝나는 단어들은 놀라운 것입니다. 인용, 다시 한번 나 자신을 인용하여, *아들 에 의해 성취된 구원*, 530 쪽.

불행히도, 저는 항상 제 인용문을 즉시 알아보지 못합니다. 제가 늙어가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그리스도가 첫 번째 언약에서 저지른 범법에서 구약의 성도들을 희생으로 바치셨습니다.

인용문 안에 인용문을 닫습니다, 히브리서 9:15. 이것은 그리스도의 속죄 희생이 그 뒤에 오는 모든 사람을 구원하고 그를 주님과 구세주로 신뢰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전에 온 모든 사람을 구원하고 희생을 통해 전달된 복음을 믿는 것도 구원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스도의 이 기념비적인 희생으로부터 누가 혜택을 입을까요?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그리스도입니다. 그는 죄인들을 위해 죽으셨습니다, 인용문, 그래서 부름받은 자들이 영원한 상속의 약속을 받을 수 있게 하셨습니다.

15절에서 하나님께서 구원에서 자신에게 효과적으로 부르시는 자들은 그리스도의 위대한 사역의 혜택을 받고 구속을 받고 하나님의 상속자가 됩니다. 따라서 적어도 두 군데에서 신약의 저자들은 새 언약의 맥락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 말했습니다. 회심.

신약은 이 세 가지 교리, 즉 회심, 회개, 믿음을 새 언약과 결합합니다. 회심은 회개와 믿음의 속기법을 뜻하는 것으로, 둘 다 회개의 한 행위의 일부이며, 죄에서 돌이키는 회개와 복음에서 제시된 그리스도를 향해 돌이키는 믿음입니다. 바울의 가장 유명한 새 언약 본문의 끝 부분에서 그는 모세가 사역했던 이스라엘 사람들의 완고한 마음을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동료 유대인들의 가려진 마음에 비유합니다.

고린도후서 3:13-15. 다행히도 그리스도께서 이 베일 인용문을 제거하셨지만, 오늘날에도 모세가 읽힐 때마다 베일이 그들의 마음에 덮여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이 주님께로 돌이킬 때마다 베일은 제거됩니다.

고린도후서 3:15, 16. 여기서 주님께로 향하는 것은 회심을 의미합니다. 폴 바넷이 보여 주듯이요. *고린도후서*, 신약성서 신국제주석, 199쪽, 바넷 인용.

하지만 바울이 말하는 '돌아가다'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정확한 문구인 '주님께로 돌이키다'는 말은 구약성경에 여러 번 나옵니다. 예를 들어, 신명기 4:30. 고린도후서 24:19과 39. 이사야 19:22. 그것은 신명기 4:30이었습니다. 역대하 24:19과 39.

9절, 이사야 19:22. 주님께로 돌이키는 것은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회개하여 돌아오는 것을 묘사하기 위해 구약에서 여러 번 나옵니다. 신약에서 이와 비슷한 표현은 그리스도인의 개종, 즉 주 예수님께로 돌이키는 것을 나타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9. 사도행전 9:35. 사도행전 11:21. 14:15. 15:19. 26:20. 베드로전서 2:25. 갈라디아서 4:9와 비교해 보세요. 한 번 더.

데살로니가전서 1:9. 이것들은 모두 사도행전 9:35에서 따온 것입니다. 11:21. 14:15. 15:19. 26:20. 베드로전서 2:25. 갈라디아서 4:9와 비교하십시오. 주님께로 돌이키라, 바넷은 여기서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의 회심을 의미한다고 말합니다. 사람들이 복음에서 제시된 대로

그리스도께로 돌이키면, 그들은 새 언약의 신자가 됩니다. 누가는 또한 새 언약과 복음적 회개를 함께 묶습니다.

베드로는 예수가 모세가 예언한 선지자라고 선포합니다. 사도행전 3:21-24 . 베드로는 듣는 사람이 아브라함/새 언약에 충성한다고 선언합니다. 인용문, 너희는 선지자들의 아들들이요, 하나님께서 너희 조상들과 맺으신 언약의 아들들이니,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땅의 모든 족속이 네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25절. 예수께서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후, 하나님께서는 그의 종을 일으키시고 먼저 여러분을 축복하기 위해 보내셨으며, 여러분 각자를 악한 길에서 돌이키게 하셨습니다. 26절.

베드로는 이렇게 청중을 언약적 맥락에 두고,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축복을 받을 수 있도록 회개하라고 촉구합니다. 바울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아브라함 언약을 성취하여 믿는 사람들에게 축복을 가져다준다고 주장합니다. 인용문,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해 저주를 받으심으로써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구속하셨습니다.

갈라디아서 3:13. 그리스도의 속죄에 대한 하나님의 목적은 무엇이었습니까? 인용문, 그 목적은 아브라함의 축복이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 이방인에게 임하여 우리가 믿음을 통해 약속된 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갈라디아서 3:14. 사람들이 믿음을 통해 아브라함의 약속에 접근한다는 점에 유의하십시오. 히브리서의 저자도 언약을 믿음과 연결합니다.

죽보 때문에 직분을 맡았던 레위 제사장들과 달리,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맹세로 제사장으로 임명되었습니다. 당신은 영원한 제사장입니다.

히브리서 7:21. 시편 110:4를 인용합니다. 저자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구속 역사의 중요성을 설명합니다.

인용문, 이 맹세 때문에 예수는 더 나은 언약의 보증이 되었습니다.

히브리서 7:22. 레위 제사장들은 많았는데, 한 사람이 죽으면 다른 사람이

그의 자리를 대신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제사장직은 십자가에 못 박히고 부활하신 분으로서 영구적으로 제사장직을 유지하시기 때문에 더 우월합니다.

24절. 그런 다음 저자는 이 진리를 복음에 적용합니다. 그러므로 그는 온전히 구원할 수 있습니다. 저는 히브리서 저자가 인용한 대로, 그를 통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위해 항상 살아 계시므로 그들을 위해 중재하십니다.

25절. 따라서 우리는 구원의 역사가 전개됨에 따라 아브라함의 새 언약이 회심과 그 구성 요소인 회개와 믿음에 결합되는 것을 봅니다. 정당화.

정당화에 대한 구약의 배경은 인상적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셨을 때,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고 정당화되었습니다. 인용문, 아브람은 주님을 믿었고 주님은 그것을 그에게 의로움으로 인정하셨습니다.

창세기 15:6. 로마서 4:3, 갈라디아서 3:6, 야고보서 3:26에서 인용한 내용을 비교해 보세요. 로마서 4:3, 갈라디아서 3:6, 야고보서 3:26. 언약을 나누는 의식 후에, 그 말은 분명합니다. 인용문, 그날 주님은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창세기 15:18. 웨스트민스터 소요리문답 33번 질문, 칭의란 무엇인가에 대한 답은, 인용문, 칭의는 하나님의 무상 은혜의 행위로, 그분은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오직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에게 귀속되고 믿음으로만 받아들여지기 때문에 우리를 그의 눈앞에서 의롭다고 받아들입니다.

인용문 닫기. 즉, 정당화는 의의 귀속과 죄의 귀속 불포함을 포함합니다. 예레미야의 새 언약 예언의 마지막 약속은 인용문입니다. 나는 그들의 죄악을 용서하고 다시는 그들의 죄를 기억하지 않을 것입니다.

예레미야 31:34. 히브리서 8:12와 10:17을 비교하세요. 주의 만찬에서 예수께서는 예레미야가 예언한 새 언약을 비준하셨습니다. 인용문, 그리고 나서 그는 잔을 들고 감사를 드리신 후, 그것을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많은 사람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 흘리는 언약의 내 피니라. 마태복음 26:26과 27.

예수님은 그렇게 하여 새 언약에 용서를 포함시키셨습니다. 바울은 새 언약의 사역을 옛 언약의 사역과 대조할 때 새 언약의 칭의를 그 사역과 연결할 때 칭의를 연결합니다. 인용하자면, 정죄를 가져온 사역에 영광이 있었다면 의를 가져온 사역은 더욱 큰 영광으로 넘쳐흐릅니다.

고린도후서 3:9. 정죄와 의는 바울이 해리스가 설명한 대로 병치했기 때문에 여기서 법정적 의미를 갖습니다. 고린도후서에 대한 해리스의 주석. 디카이오 수네, 의는 여기서 윤리적 용어라기보다는 관계적 용어로, 로마서 1:17, 3:21, 22, 10:3, 빌립보서 3:9에서처럼 하나님 앞에서의 올바른 입장을 나타내는 용어입니다. 의, 그리스어 단어 디카이오 수네는 이 구절에서 법정적 또는 법적 의를 의미하며, 고린도후서 3:9과 예를 들어 로마서 1:17, 로마서 3:21, 22, 로마서 10:3, 빌립보서 3:9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즉, 하늘 법정에서 옳은 입장에 있는 지위입니다.

하나님의 승인은 정죄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 달려 있습니다. 인용문 닫기. 다시 한번, 성경은 새 언약과 칭의를 연결합니다.

히브리서 저자가 새 언약을 하나님의 약속과 연결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그들의 잘못을 용서하고 다시는 그들의 죄를 기억하지 않을 것입니다. 히브리서 8:12. 입양은 다른 구원론적 주제와 마찬가지로 언약과 함께 나타납니다.

유대교도들은 바울이 모세의 율법을 거부함으로써 거짓 교리를 가르쳤다고 비난했습니다. 바울은 아브라함 언약과 새 언약의 연속성을 강조하여 대응했습니다. 인용문, 내 요점은 이렇습니다. 430년 후에 온 율법은 하나님께서 이전에 세우신 언약을 무효화하지 않고 따라서 약속을 취소하지 않습니다.

만일 유업이 율법에 근거한 것이라면 그것은 더 이상 약속에 근거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통하여 아브라함에게 은혜롭게 그것을 주셨습니다. 갈라디아서 3:17 , 18.

유대교도들은 율법을 하나님의 주된 언약으로 여길 때 오류를 범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새 언약이 된 아브라함 언약에 종속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아브라함의 씨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을 두 가지 방식으로 해석합니다. 첫째, 씨는 그리스도입니다. 인용문, 이제 약속은 아브라함과 그의 씨에게 말씀되었습니다.

그는 마치 많은 것을 언급하는 것처럼, 그리고 씨앗들에 대해 말하지 않고 , 오직 하나와 그리스도이신 여러분의 씨앗에 대해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3:16. 둘째, 이 구절의 끝 부분에서 바울은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신자들이 아브라함의 씨로 여겨져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만일 여러분이 그리스도께 속해 있다면, 여러분은 아브라함의 씨이며 약속에 따른 상속자입니다.

29절. 아브라함의 씨에 대한 바울의 개인적이고 공동체적인 설명 사이에, 그는 새 언약이 모세 언약을 능가했으며, 따라서 신자들은 모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말합니다. 26절.

여기서 바울은 언약과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결합합니다. 성화. 구약과 신약은 모두 언약의 맥락에서 성화에 대해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전에 나타나신 후에 다시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내 앞에서 살고 흠이 없어라. 내가 나와 너 사이에 언약을 세우고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창세기 17장. 하나와 둘. 하나님은 이로써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확증하셨으니, 곧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의 후손의 하나님이 되시겠다는 언약입니다.

7절. 창세기 15장의 의식은 언약이 원래 단독적 이었다는 것을 분명히 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그것이 또한 양자적이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브라함을 자기 자신을 위해 주장한 후에, 하나님은 그가 거룩함 안에서 자신을 위해 살기를 기대하셨습니다. 언약은 단독적입니다 .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창세기 15장에서 동물의 조각 사이를 걸어가시며, 문자 그대로 언약을 자르고, 언약을 세우실 때 잠들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후로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그의 생명을 주장하십니다. 그는 의무가 있습니다. 언약은 기원에 있어서는 단독적 이지만, 그 결과로서 양자적이기도 합니다.

두 당사자 모두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을 포함한 책임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바치려고 했을 때, 하나님은 그의 손을 멈추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말고 그에게 아무것도 하지 말라. 이제 나는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알았노라. 네가 네 외아들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라. 창세기 22 :11, 12.

이 언약은 실제로 쌍무적이며, 아브라함은 평생 하나님을 사랑하고, 두려워하고, 순종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가랴가 하나님께서 그와 엘리사벳에게 아들을 주실 것이라고 믿지 않아서 그를 병어리로 만들었습니다. 아기가 태어났을 때, 그의 어머니는 그의 이름을 요한이라고 했고, 모든 사람이 놀랍게도 사가랴는 동의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고, 그는 즉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인용하자면,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방문하시고 구원을 베푸셨습니다. 누가복음 169장. 메시아 예수의 선구자인 세례자 요한의 탄생은 기쁨의 원인이었습니다.

스가라는 아브라함의 언약을 기억하신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70~73절. 그는 하나님의 은혜로운 개입의 목적은 그의 백성이 평생 동안 그의 면전에서 거룩함과 의로움으로 두려움 없이 그를 섬기는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누가복음 1장 74절과 75절. 다시 한번 언약과 거룩함이 합쳐집니다. 우리는 주의 만찬에서도 같은 현상을 관찰합니다. 바울은 고린도인들에게 예수께서 만찬을 제정하신 것을 이야기하고 시정의 말씀을 더했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와의 연합, 다른 신자들과의 연합이라는 수평적 차원을 어긴 그들을 질책했습니다. 부자들은 잔치를 벌이고 있었지만, 그들과 같은 식탁에 앉은 가난한 사람들은 주님의 만찬이 거행되는 교제 만찬에서 먹을 것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는 부자들을 그들의 죄로 인해 질병, 병, 심지어 죽음으로 징계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1:30. 바울은 고린도인들에게 자신을 살피고 믿음으로 만찬에 참여하라고 명령합니다. 27-29절. 만찬은 하나님의 거룩하게 하는 도구 중 하나이며, 고린도인들이 바울의 훈계를 경청한다면 하나님의 일시적인 심판을 면할 것입니다.

보존. 바울은 예수님의 말씀을 인용합니다. 이 잔은 내 피 안에 있는 새 언약입니다.

고린도전서 11:29. 그런 다음 바울은 하나님께서 주님의 식탁에서 저지른 학대에 대해 일시적인 심판으로 많은 고린도 신자들을 찾아오셨다고 말합니다. 30절. 아이러니하게도, 바울의 심판에 대한 말은 그릇된 고린도인들에게 하나님께서 일시적인 형벌을 내리시더라도 그들을 구원해 주실 것이라고 확신시켜 줍니다.

인용문, 우리가 우리 자신을 올바르게 판단했다면, 우리는 판단받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께 판단받을 때, 우리는 세상과 함께 정죄받지 않도록 징계를 받습니다. 31, 32절.

그러므로 이 새 언약의 본문에서 바울은 하나님께서 그의 성도들을 보존하신다는 것을 확인합니다. 히브리서 5장의 경고 구절은 잘 알려져 있습니다. 히브리서 6장 17절과 20절, 히브리서 7장 23절과 25절의 강력한 보존 구절은 잘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후자의 본문에서 저자는 우리의 위대한 대제사장인 예수가 더 나은 언약의 보증이라고 확인합니다. 22절. 이 맥락에서 저자는 예수의 부활과 그의 제사장직과 하나님 백성의 안전에 대한 의미를 확인합니다.

인용문, 그는 영원히 남아 있기 때문에, 그는 그의 신권을 영구히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항상 그들을 위해 중보하기 위해 살았기 때문에 그를 통해 하나님께 오는 사람들을 온전히 구원할 수 있습니다. 24절에서 25절.

새롭고 더 나은 언약의 한 측면은 예수께서 그의 백성을 최후의 구원을 위해 보존하실 것이라는 하나님의 선언입니다. 히브리서는 그리스도의 웅장하고 효과적인 희생과 그로 인한 그의 백성의 안전을 찬양합니다. 왜냐하면 그는 한 번의 제물로 거룩하게 되는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10:15. 그 다음에 저자는 예레미야의 새 언약 구절을 인용합니다 . 인용문, 이것이 내가 그 날 이후에 그들과 맺을 언약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니 다시는 그들의 죄와 불법 행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16절과 17절. 짧은 범위로 두 번이나 히브리서는 보존을 선포합니다.

그리스도께서 그의 백성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기 때문입니다. 15절. 그리고 그는 그들의 죄를 결코 기억하지 않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인용문 닫기. 새 언약은 영원한 안전을 포용합니다. 마지막으로, 영원한 생명과 영광.

예수께서는 주의 만찬을 제정하실 때, 그 잔을 언약의 피라 부르신 후, 마태복음 26:28에서 “인용하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이 포도나무 열매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왕국에서 너희와 함께 새 것으로 마실 그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29절. 여기서 새 언약에 대해 말씀하신 후, 예수께서는 최후의 구원을 아버지의 왕국에서 그의 백성과 포도주를 나누는 것으로 묘사하십니다.

바울의 만찬 제정 버전에서 예수님은 잔을 내 피의 새 언약이라고 부르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1:25. 그리고 종말론적 주석을 덧붙이셨습니다

인용문, 이 빵을 먹고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님의 죽음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합니다. 26절. 여기서 성경은 새 언약과 예수님의 재림을 연결하는데, 성경은 이것이 최종 구원을 시작한다고 가르칩니다.

히브리서는 또한 새 언약과 영생을 연결합니다. 12절에서 영원한 구속을 보장한 그리스도의 피를 찬양한 후, 저자는 자신이 부름받은 자들이 영원한 상속 의 약속을 받을 수 있도록 새 언약의 중보자임을 선포합니다 . 같은 장의 끝에서 히브리서는 그리스도께서 두 번째로 나타나실 것이라고 단언합니다.

그것은 히브리서 9장일 것입니다. 죄를 지고자 함이 아니라 그를 기다리는 자들에게 구원을 가져다주기 위함입니다, 28절. 마태, 바울, 히브리서는 이렇게 새 언약을 하나님의 최후의 왕국, 예수의 재림, 그리고 그가 가져올 구원에 연결시킵니다.

이러한 그림은 영생과 영광과 겹칩니다. 따라서 우리는 구원의 열 가지 측면과 세 가지 핵심적인 성경적-신학적 주제 사이의 인터페이스를 조사했습니다. 그 결과, 우리는 선거, 연합, 중생, 부르심, 회심, 칭의, 입양, 성화, 보존, 영생과 영광이 이러한 주제를 어떻게 교차하는지 봅니다.

구원과 이미와 아직 아닌 것. 구원과 하나님의 왕국. 구원과 언약.

이 모든 것은 성경적 가르침의 상호 의존성과 일관성을 가리킵니다. 이는 우리가 먼저 한 개별적이고 체계적인 교리의 관점에서 보든, 또는 우리가 이 후반 강의에서 방금 완료한 성경 신학에서의 그들의 위치와 같은 관점에서 보든 말입니다. 구원과 신학적 주제, 즉 구원의 적용에 대한 주제를 차트의 도움으로 요약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구원의 10가지 측면을 해석학적으로, 신학적으로 탐구했습니다.

그리스도와의 연합, 선택, 부르심, 거듭남, 회심, 칭의, 입양, 거룩함, 인내, 그리고 영생과 거룩함, 영광. 신학자들은 창조 선택 이전에 성부가 구원을 계획한 것, 1세기에 성자가 죽음과 부활로 구원을 성취한 것, 성령이 구원을 적용한 것, 그리스도와의 연합, 그리고 위에 나열된 부르심에서 현재의 영광으로의 모든 것, 그리고 새 땅에서 부활로 구원을 완성한 것, 여기에는 영생과 미래의 영광이 포함됩니다. 구원의 적용에 대한 결론을 요약한 차트가 있습니다.

선택은 차트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그 일부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의 일부입니다. 영광은 차트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의... 그렇습니다. 영광은 차트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측면에서 구원의 적용에 속하기 때문입니다.

영광은, 제가 그것을 적절한 측면, 종말론적 측면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아직 차트에 속하지 않고 속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없습니다. 우리는 측면 목록을 가지고 있습니다. 필요성은, 제가 말했듯이, 우리가 구원 교리를 적용하면서 작업했을 때, 저는 말했습니다, 이러한 것 각각은 그 필요성에 반하여 가장 잘 이해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은 필요 사항 목록입니다. 다음은 적용되는 구원의 각 측면에 대한 간략한 설명과 해당 교리를 가르치는 핵심 성경구절입니다. 그리스도와의 연합.

에베소서 2장에서처럼 그리스도와와의 분리가 필요했습니다. 설명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와 영적으로 합치시므로 그의 구원의 혜택이 우리의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 에베소서 1장 3절~14절. 부르심은 모든 사람에게 가야 할 외적인 복음 부르심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사람들에게 가는 내적인 효과적인 부르심입니다.

부르심의 필요성은 귀머거리, 즉 들어야 할 필요성입니다. 죄인들은 하나님의 것들을 들을 귀나 볼 눈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내적 부르심, 그의 효과적인 부르심을 통해 그들이 들을 수 있게 하시고, 외부적인 복음 부르심을 통해 일하십니다.

디모데후서 1:9은 그것에 대한 좋은 본문입니다. 거듭남. 필요한 것은 영적 죽음이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허물과 죄로 죽었고, 하나님은 은혜롭게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습니다. 에베소서 2:1-5는 그것을 보여주기에 좋은 곳입니다. 죽음이라는 필요성과 살리는 것, 즉 거듭남이라는 활력을 결합합니다.

회심은 회개와 믿음을 포함하는 구원의 적용의 또 다른 측면입니다. 회심, 필요한 것은 잃어버린 것입니다. 우리는 이사야 53장의 양과 같았습니다.

우리는 모두 길을 잃은 양과 같습니다. 우리 각자는 제 길을 갑니다. 우리는 길을 잃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죄에서 그리스도께로 돌이키십니다. 그는 우리를 회심시키십니다. 우리는 회개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므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20:21은 회개와 믿음을 모두 합친 것입니다. 칭의. 필요한 것은 정죄였습니다.

우리는 법을 어긴 자로서 율법의 저주, 율법의 형벌 위협 아래 서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저주를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를 의롭다고 선언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의롭다고 선언하십니다.

에베소서 2:15, 16은 그것을 보여주기에 좋은 구절입니다. 입양. 필요한 것은 노예 제도, 죄에 대한 속박, 그리고 세상의 초보적인 원리들이었는데, 이는 배교적 유대교와 이방인 이교도의 배후에 있는 악마의 영역일 수도 있습니다.

노예, 죄와 자아에 대한 속박. 성경 갈라디아서 3:26,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을 입양하신다. 성화.

필요한 것은 더러움이었습니다. 우리는 영적인 나병환자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십니다.

그는 우리를 죄의 영역에서 거룩함으로 옮기셨고, 초기 성화에서 우리를 그의 성도로 구성하셨고, 그의 영을 우리에게 주셨으며, 점진적인 성화에서 우리 안에서 일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는 최종적인 영광에서 우리와 함께 확증하실 것입니다. 에베소서 5:25-27은 교회를 위해 자신을 사랑으로 드려 교회를 정화하고 정결하게 하신 그리스도의 사역을 높입니다.

그리고 그는 그것을 흠 없는, 아름다운, 거룩한 신부로 자신에게 바칠 것입니다. 보존.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필요는 불충실함입니다. 찬송가에서 말했듯이, 우리 자신에게 맡겨진다면, 우리는 방황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그분의 신실함 안에 지켜 주십니다.

그는 우리를 끝까지 구원하십니다. 로마서 8:28~39는 그 구절들에 걸쳐 지속될 뿐만 아니라 주제가 보존이기 때문에 가장 좋은 구절입니다. 이미 또는 성취된, 성취되는 측면에서의 영광.

영광은 수치심의 반대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백성의 수치심을 없애시고 지금 그리스도 안에서 그들에게 영광을 주십니다. 놀랍게도, 우리는 영광이 아직은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이 옳지만, 고린도전서 3:18은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를 은혜로 믿음으로 영광에서 영광으로 변화시키고 있다고 말합니다.

이런 것들에 대한 우리의 반응은 무엇일까요? 첫째, 예배에 가고 싶습니다. 분명히 우리는 성부, 성자, 성령을 찬양해야 합니다. 이제 부활한 몸으로 새 땅에서 영원한 찬양을 위한 오디션에서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그는 그의 백성에게 은혜로우십니다. 우리는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를 사랑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온 마음을 다해 그에게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기도하면서 주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그들을 사랑하고자 노력하면서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기회를 주실 때, 그들이 구원받을 수 있다는 좋은 소식을 전하세요. 이 강의의 마지막 말은 다음과 같아야 합니다.

Soli Deo Gloria. 오직 하느님께만 영광을 돌립니다. 아멘.

이것은 구원에 대한 그의 가르침에서 로버트 피터슨 박사입니다. 이것은 세션 23, 구원과 신학적 주제, 구원과 언약, 구원의 적용, 요약 차트입니다.